

오피니언

光日春秋

문국현



강원도를 '동북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어 보자는 것은 환경재단 최열 대표나, '생명의 숲'을 맡고 있는 나에게는 아주 오랜 꿈들 중의 하나이다.

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강원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노력 외에는 이렇다 할 국제적 기구나 활동이 거의 없는 것이다.

꿈꾸는 행복

200여 개의 토론회를 소화해내고, 세계의 주목을 이끄는 5개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이 그 작은 도시에서 36년째 열린 것이었다.

특히, 스위스나 강원도나 유럽의 지붕이요, 한국의 지붕으로서, 모든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이다. 스위스에서는 유럽의 3대 하천인 라인강·르간·그리고 도나우 강이 발원하고, 강원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하천인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줄기가 발원한다.

그러나 스위스와 강원도 사이에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지역으로 자리잡고, 제네바·취리히·바젤·다보스 등과 같은 작지만 세계적인 도시와 각종 국제기구의 본부

과 국제기구가 들어서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어언 7년 전일이다. 한강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억제될 상류의 강원도민들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하류 유역의 시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무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함께 추진할 때의 일이다.

그간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드디어 올해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생태·평화 리더십센터가 강원도 강원대학교 내에 창립될 예정이다.

국내외 관심 있는 교수·전문가들이 소속을 초월하여 참가하고, 생명의숲·환경재단·동북아산림포럼·평화의숲·CEO 환

경경영포럼·유한킴벌리 등이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림청, 강원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도의 성공을 축원하고 있다.

이 유엔 환경계획(UNEP) 생태·평화 리더십 센터는 주로 아시아의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고, 꿈꾸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만남과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25개 안팎의 주요현안 과제를, 현지의 민간지도자들과 생태·평화 리더십 센터에 소속해 있는 100여명의 자원봉사 교수, 전문가들이 현장을 오가며 공동연구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강의·지도

한 후, 연 1회 강원도에서 '세계 생태·환경 포럼'을 개최하여 그 연구 및 활동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보람 있는 것은, 유엔환경계획(UNEP)은 물론이고, 유엔사막화방지지구(UNCCD), 그리고 유엔산림포럼(UNFF) 등 직간접 관련기구들이 이 새로운 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원해주고 있는 점이다.

7년 만에 이룬 작은 성취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엔환경계획의 아시아 소장을 맡고 있는 슈레스터 소장은 유엔 생태·평화 리더십 센터의 추진 배경을 알고 나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하천 발원지인 히말라야 산맥의 상수원 보호운동에 우리들의 꿈과 노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25개 프로젝트 중에서 최소한 몇 개를 히말라야 상수원 보호 및 유역 관리 프로젝트로 하자는 합의가 즉석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강원도 상수원 지키기에서 시작한 하나의 '작고 오래된 꿈', 아시아와 히말라야의 물줄기를 지키자는 아시아의 '새롭고 큰 꿈' 하나가 탄생시킨 것이었다.

10년, 아니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꿈을 키워나가는 시민운동가들은 한편 무모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머리로는 행복을 꿈꿀 줄 알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자신의 팔팔트를 다 바치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엄혹한 5·31민심도 '수구반동'이라 할텐가

예상대로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싸늘이를 막아달라며 국민에게 호소했지만 이제 '전복 자민련'으로 전락했다는 비웃음을 사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집권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엄혹한 민심을 제발 제대로 읽고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그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펴 줄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 '울인'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열세지역에 후보를 출전시키면서 장관직을 후보 '관록'용으로 남용했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노대통령의 최측근인사가

'참여정부는 부산정권'이라는 발언까지 뱉는 지경이었다. 정동영 의장은 선거 운동기간 광주에 일곱차례나 내려왔다. 이렇고도 5·31 민심을 지방선거결과일 뿐이라며 외면한다면 이는 구제불능의 오만이다.

선거가 이렇게 끝난 이상 참여정부는 임기 1년반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은 분당론과 노대통령 탈당론으로 들끓을 것이요 한나라당은 대권후보간 경쟁과 세력가르기에 빠져들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같은 정치선행에서 눈을 돌리고 오로지 정권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으로 경제와 민생을 돌아야 한다. 한심한 이념논쟁이나 국민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민심에 귀 기울여 개혁의 좌표를 수정해나가야 한다.

선거사범 수사·재판 신속히 마무리 해야

5·31 지방선거 사범이 급증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공식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모두 3070명에 달하고 215명이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선거일 30일 뒤부터 후보자 선거 비용 및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실사가 시작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공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8명 등 108명이 회계실사에 적발돼 당선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선거사

범 재판은 임기 막판까지 질질 끄는 경우가 허다했다. 불법으로 당선되고도 아무 거리낌없이 상당기간 현직을 유지하는 불성사나운 사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선거 사범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신속한 재판 못지 않게 탈·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준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과거 법원 수뇌부가 선거사범 입건지를 여러차례 천명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묘하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은 사법당국의 몫이다.

無等鼓

"하라인으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투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윈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모임인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미 뉴저지 주에서 가진 월례모임에 참가한 뉴저지주 상무장관의 말이다.

'최고 경영자(CEO) 겸 장관(Secretary)'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매년 내는 연례보고서의 내용이 한 해 동안 유치한 투자 건수 및 액수, 일자리 창출 개수를 명시해 주 정부의 투자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경영



뉴저지 주는 2000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 평균이 5만5천 146달러로 미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뉴저지 주는 미국 주 가운데서 규모가 작은 주에 불과하지만 경제 규모는 8번째, 나라로 치면 전 세계에서 18 번째의 경제대국이다.

뉴저지 주는 기업투자유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기업 투자 유치율로 통 해서다. 뉴저지 주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 데 불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 등 규제부서는 아예 상무장관 직속으로 배치할 정도다.

뉴저지 주가 기업투자유치에 얼마나 열심이고 있는가는 상무장관 명칭에서 엿볼 수 있다. 상무장관의 공식 명칭을

는 언제나 '재임 중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가' '앞으로 주지사에게 당선되면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나'로 모아진다고 한다. 5·31지방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갈 일꾼들이 선출됐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기고



최정주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정책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소비는 줄고 경영비는 증가하여 농업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두 번째로 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업에 맞는 올바른 안전장구 착용과 함께 농기계의 취급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상태에서 농기구를 조작하거나 경운기의 운행을 삼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촌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엘리노와 라니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냉해, 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손실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도로 주행 시 반사판이나 조명장치 등을 부착하고 두렵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하면 물론 환자 상태를 정확히 신고 하는것이 중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자!

최근 3년간 구조 활동건수와 발생추이 등의 자료를 토대로 5월 하반기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록 하는 것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요령이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당부전화를 할 때 농기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지혜를 발휘 할 때라 생각한다.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농기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참고로 지난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도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이후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1명의 사상자중 60대 이상이 17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당국에서도 농기계 안전사고주의보에 따라 농촌지역 마을 엠프 방송 실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 등 각종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일선 소방서에 시달하고 각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농업 경영인의 노령화의 영향으로 사고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기계 중 경운기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이 충남에

뒤를 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생활화는 성숙된 시민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게임중독 증상·치료법 적극 홍보 중독자 양산 막아야

밤새도록 PC게임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다. 게임 중독은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자칫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나는 아니겠지', '이정도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면을 볼 수 없으며, 입이 비뚤어져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계속 흘린다. 일상의 고통은 자신감 상실과 사회 생활 기피로 이어져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임 중독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PC게임방에는 사이버 도박에 빠진 성인들도 상당하다.

최근 TV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 얼굴이 틀어져 정면을 볼 수 없는 20대 대학생을 보았다.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돌아가 5초 이상

게임 중독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아이름·광주시 남구 화성동>

독자마당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나라사랑 참똥 되새기자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 월드컵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하며 월드컵에 관심은 기울이는 것은 분명히 마음속 깊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현충일도 비슷하다.

며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은 망종일과 겹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유로 현충일이 제정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년 공휴일 종류는 총11개로 대별되며, 현충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공휴일 중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다음으로 6 번째에 해당한다. 1956년 4월19일 대통령령 제1145호에 의해 6월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충일 행사는 크게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중앙추념식과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방추념식으로 구분된다. 중앙추념식은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여 거행되며, 지방추념식은 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 지방의회 의장 등 각계 기관 단체장과 보훈가족이 참석하여 현충탑 등에서 거행된다.

6월6일을 특별히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고, 1년 24절기 중 만종일로서 제사를 지내는 옛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며, 고문헌에는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 조정에 장방의 뼈를 집어오는 봉송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망종일은 보리가 익고 이앙이 시작되기에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날이었으

는 것 보다 낫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객량을 예측해 음식을 만들기 힘들다면 남은 음식을 버리기 보다는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예식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고, 배고픈 사람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 모두가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중·고등학교들에게 예식장 음식물을 불우 시설에 나눠주는 활동을 시키고 자원 봉사 점수를 준다면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 같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예식장 남은 음식, 불우이웃에 전달했으면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식이 치러지는 날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남아 돌게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조차 버려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성준·목포보훈지청

전국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치러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결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는데 왜 함경이나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특히 음식이 부족, 하객들에게 원성을 듣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범죄 표적 50cc미만 오토바이 법 제정 시급

50cc미만의 소형 오토바이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50cc이상의 이륜차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게 되어 있으나 50cc미만의 소형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여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형 오토바이의 도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버려진 소형오토바이를 발견하더라도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돌려주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허술한 법이라면 고쳐야 한다.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도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소유자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